

# “정책 중심 클린선거 실천”

##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 네거티브 중단 촉구 “이제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가열되고 있는 당내 경선 과정의 혼탁함을 질타하며 끝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정책 선거에 입할 것을 천명했다.

△ **진안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혼탁함... 당원과 군민께 사죄**

전춘성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 진안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진안하며, “진안지역 선거 역사상 이토록 근거 없는 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했던 적은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라는 한울타리 안에서 함께 해 온 동지들끼리 공정한 정책 경쟁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네거티브로 얼룩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 **“무능론은 어불성설... 공약 이행률 90% 이상, 실력으로 입증”**

상대 후보들이 제기하는 ‘무능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예비후보는 “경쟁자들은 제가 무능하다고 비판하지만, 숫자가 증명하는 진안의 성적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0% 이상 달성,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최고 등급(SA)’ 획득 등을 언급하며, “진안형 기본사회 구현과 기본소득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온 결과가 대외적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했다. 이어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를 통해 진안의 변화를 이끌어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끝까지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 본선 승리의 밑거름 될 것”**

전 예비후보는 과거 민선 7, 8기 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비방이나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민선 9기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상대가 비방을 쏟아낼지라도 저는 오직 진안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만 승부하겠다”며 “남은 기간 흔들림 없이 군민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4월 20~21일 결선 투표 후, 민주**

당 ‘원팀’으로 본선 압승”

오는 4월 20일과 21일로 예정된 민주당 결선 투표와 관련해 전 예비후보는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결선에서 당원과 군민 여러분께의 준엄한 선택을 받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다면, 그동안 경쟁을 펼쳤던 다른 후보들과 손을 맞잡겠다”며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을 털어내고 민주당의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쳐,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진안의 중간 없는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 예비후보는 “군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진안의 격을 높이고 정치를 바꾼다”며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누가 진정으로 일할 준비가 된 후보인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통합돌봄 시행 2주 만에 전국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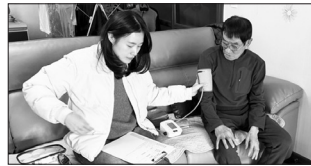
## 무주군, 노인 인구 대비 신청률 전국 상위권... 주민 참여 확산

무주군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시행 2주 만에 전국 상위권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2차 운영 성과’에 따르면 무주군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적으로는 2주 동안 총 8905명이 신청했다.

무주군의 경우는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 58.6명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8.1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읍면 중심의 촘촘한 전달 체계 구축,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현장 중심의 신속



한 대응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통합돌봄 수요 발굴과 초기 대응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무주군은 사업 시행 이후 신청·접수 58명, 조사 58명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했으며, 현재까지 식사 지원 18건, 가사 지원 9건, 방문간호 6건, 인부 확인 및 정서적 지원 6건 등 일상 및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한 51건(25명)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 무주산골영화제, 한국장편경쟁 ‘창’ 색션 9편 선정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가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색션 상영작과 심사위원을 공개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무주군 일대에서 5일간 개최된다.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색션은 동시대 한국영화의 다양한 흐름을 조명하는 경쟁 프로그램으로, 개성 있는 시선으로 제작된 장편영화를 선정해 상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총 110편의 한국영화가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새로운 감각과 한국 사회에 대한 통찰이 돋보이는 극영화 9편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작에는 가족의 죽음을 다룬 이재한 감독의 ‘다른 이름으로’와 이원영 감독의 ‘비밀’이 포함됐다.

또 강과 인간, 지역 공동체를 다룬

김정연 감독의 ‘별과 모래’, 하이틴 감성을 담은 유재욱 감독의 ‘산양말’, 신혼 부부의 현실을 그린 소성식 감독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름을 올렸다.

‘후광’까지 총 9편이 관객과 만난다. 시상 부문은 뉴비전상과 감독상, CAPRA 크리에이티브상, 영화평론가상, 무주관광객상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총상금은 2300만 원이다.

심사위원으로는 김지연 퍼스펙티브 스튜디오 대표, 모은영 한국영상자료원장, 이종필 감독이 참여한다.

영화평론가상 부문 심사에는 신은실, 윤아람, 이병현 영화평론가가 맡는다. /무주=손흥기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 ‘기본소득 120만원 상향’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선거구·사진)은 지난 14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질문을 통해 군민 삶의 질과 정책효능감 제고를 위한 ‘진안형 기본소득 상향’과 ‘마령면 오동실 악취 문제 종식’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 연 40만원 수준인 진안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연 120만 원(1인당 월 1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하며, “정부의 기본소득 확대 기조에 발맞춰 선제적인 정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일 정부 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유치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40년 가까이 지속된 마령면 오동실 마을의 악취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악취 종식 최종 해결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AI 기반 기상예측 기술로 농가 경쟁력 강화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기상예측 기술 보급과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상예측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해 사과시험장에서 서리·우박 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농작물 주요 병해충 발생 월간 전망 기술 개발’ 과제에도 협력해 병해충 발생 시기와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농가가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과수원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농약 노출을 최소화하는 무인방제기 도입 및 실증을 병행해 농약 살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27일 지급 시작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1차 신청

진안군은 최근 증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승 속에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하위 70% 군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소득 하위 70% 범위 내에서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지급되며, 1차

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에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하위 70%의 군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한다.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인 진안군의 경우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2차 신청 대상자인 군민에게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개인별로 진행되며, 4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이비앱, 카카오톡

등 2개 앱 및 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알립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면 이를 통해 지급 신청일 이를 전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은행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진안사랑상품권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선별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제7회 장수 트레일레이스 대회’ 성황리 마무리

장수군은 ‘한국의 사모니’를 꿈꾸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7회 장수 트레일레이스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4K-VT(28명), 5K(428명), KIDS(36명), 20K(519명), 38K-P(1,462명), 70K(473명) 등 총 6개 코스에 약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장수의 청정 산악 지형을 누비며 열린 경쟁을 펼쳤다.

코스별 우승자는 △70K(38K 단축) 임정현 선수(4시간14분42초), 노현진 선수(4시간37분12초) △38K-P 김영조 선수(3시간54분18초), 강현지 선수(4시간32분51초) △20K 이규호 선수(2시간



4분52초), 김다슬 선수(2시간34분21초) △5K 이형도 선수(19분20초), 김보옥 선수(27분30초) △4K-VT 이형도 선수(29분18초), 이성의 선수(43분7초)로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

/장수=고관호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